

개도국에 'K농업기술' 전수... ODA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사업 다변화를 통해 해외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과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공사의 해외사업 중 하나인 '해외기술 용역사업'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관개 배수, 농촌 개발 등의 용역을 수주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총 35개국에 165건의 기술 용역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협력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6월에는 필리핀 국립관개청과 식량 안보, 재해 예방,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 200만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8개에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공사는 개도국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경지 정리부터 용·배수로, 관개용 저수지 구축, 작물 생산 및 보급 체계 지원은 물론 농산물 가공 기술 및 낙농 기술 전수 등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한국의 씨감자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볼리비아에서는 감자 생산량



지난 16일 필리핀 국립관개청에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왼쪽)과 에두아르도 에디 필리핀 관개청장이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이 2배 증가했고, 한국 젖소의 인공 수정, 사양 관리 등 낙농 기술을 전수받은 우간다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사는 작년까지 17개국에 55개 ODA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농식품부가 UN 산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자성양자 ODA 사업의 위탁 시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사는 식량 보호주의 확산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꾸준한 쌀 소비 증가가 우리 농·어업 수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변화 흐름에 부응하고자 'K농공기술 수출확대 추진단'을 출범했다.